朝鲜语语法

조선어문법

chaoxianyuyufa

主编：金哲俊　金光洙

延边大学出版社
연변대학출판사

责任编辑：金美淑

朝鲜语语法
조선어문법

ISBN 978-7-5634-2436-8
定价：42.00元

ISBN 978-7-5634-2436-8

朝鲜语语法

조선어문법

主编：金哲俊　金光洙

延边大学出版社
연변대학출판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朝鲜语语法/金哲俊,金光洙著. —延吉:延边大学出版社,2008.3

ISBN 978-7-5634-2436-8

Ⅰ.朝… Ⅱ.①金…②金… Ⅲ.朝鲜语-语法-高等学校-教材 Ⅳ.H554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2008)第 028867 号

朝鲜语语法

主编:金哲俊 金光洙

责任编辑:金美淑

出版发行:延边大学出版社

社址:吉林省延吉市公园路 977 号 **邮编**:133002

网址:http://www.ydcbs.com

E-mail:ydcbs@ydcbs.com

电话:0433-2133001 **传真**:0433-2733266

印刷:北京通州丽源印刷厂

开本:787×1092 1/16

印张:29.75 **字数**:318 千字

印数:1—2000

版次:2008 年 7 月第 1 版

印次:2008 年 7 月第 1 次印刷

ISBN 978-7-5634-2436-8

定价:42.00 元

차 례

서 론 ..... (1)
제1절 문법과 그 특성 ..... (1)
제2절 문법론의 연구대상 ..... (3)
제3절 문법연구의 력사 ..... (5)

제1편 형태론

제1장 단어와 형태소 ..... (9)
제1절 단어 ..... (9)
제2절 단어의 갈래 ..... (12)
1. 단순어 ..... (12)
2. 파생어 ..... (13)
3. 합성어 ..... (13)
4. 품사전성어 ..... (14)
제3절 형태소 ..... (15)
1. 형태소의 개념 ..... (15)
2. 형태소의 분류 ..... (16)
제2장 품사 ..... (19)
제1절 품사의 분류 ..... (19)
1. 품사의 분류기준 ..... (19)
2. 품사의 분류 ..... (22)
3. 체언과 용언의 특징 ..... (25)
제2절 명사 ..... (27)
1. 명사와 그 특성 ..... (27)
2. 명사의 종류 ..... (29)
제3절 대명사 ..... (36)
1. 대명사와 그 특성 ..... (36)

此为试读,需要完整PDF请访问: www.ertongbook.com

2. 대명사의 종류 …… (38)
제4절 수사 …… (48)
1. 수사와 그 특성 …… (48)
2. 수사의 분류 …… (51)
제5절 동사 …… (53)
1. 동사와 그 특성 …… (55)
2. 동사의 분류 …… (56)
제6절 형용사 …… (67)
1. 형용사와 그 특성 …… (67)
2. 형용사의 분류 …… (69)
3. 형용사와 동사의 차이 …… (71)
제7절 용언의 불규칙활용 …… (74)
1. 어간의 불규칙활용 …… (74)
2. 용언토의 불규칙활용 …… (76)
3. 어간과 용언토의 불규칙활용 …… (78)
제8절 관형사 …… (79)
1. 관형사와 그 특성 …… (79)
2. 관형사의 분류 …… (80)
3. 관형사와 접두사의 차이 …… (82)
제9절 부사 …… (83)
1. 부사와 그 특성 …… (83)
2. 부사의 분류 …… (86)
제10절 감탄사 …… (91)
1. 감탄사와 그 특성 …… (91)
2. 감탄사의 분류 …… (93)
3. 감탄사와 상징부사의 차이 …… (95)
제3장 문법적형태와 문법적범주 …… (97)
제1절 문법적형태와 문법적의미 …… (97)
제2절 문법적범주 …… (100)
1. 격범주 …… (103)
2. 련관범주 …… (105)

3. 수범주 …… (107)
4. 식범주 …… (110)
5. 계칭범주 …… (113)
6. 존칭범주 …… (129)
7. 시칭범주 …… (130)
8. 법범주 …… (129)
9. 상범주 …… (130)
제4장 토의 특성과 류형 …… (135)
제1절 토의 특성 …… (135)
1. 토의 교착적특성 …… (135)
2. 토의 기능적특성 …… (137)
3. 토의 의미적특성 …… (138)
제2절 토의 류형 …… (138)
1. 대상토와 서술토 …… (139)
2. 위치토와 비위치토 …… (139)
제5장 대상토의 의미와 쓰임 …… (144)
제1절 격토의 의미와 쓰임 …… (144)
1. 격토의 의미 …… (144)
2. 격토의 쓰임 …… (163)
제2절 도움토의 의미와 쓰임 …… (170)
1. 도움토의 의미 …… (170)
2. 도움토의 쓰임 …… (180)
제3절 복수토의 의미와 쓰임 …… (187)
1. 복수토 "-들"의 의미 …… (187)
2. 복수토의 쓰임 …… (188)
제6장 서술토의 의미와 쓰임 …… (193)
제1절 종결토의 의미 …… (193)
1. 서술식토와 그 의미 …… (195)
2. 의문식토와 그 의미 …… (198)
3. 명령식토와 그 의미 …… (202)
4. 권유식토와 그 의미 …… (205)

5. 감탄의 의미를 나타내는 토 및 그 의미 …… (206)
제2절 종결토의 쓰임 …… (208)
제3절 접속토의 의미 …… (216)
1. 병렬접속토의 의미 …… (218)
2. 종속접속토의 의미 …… (234)
3. 보조적접속토의 의미 …… (249)
제4절 접속토의 쓰임 …… (253)
1. “-고”와 “-며”의 쓰임 …… (253)
2. “-다가”와 “-며”, “-고”의 쓰임 …… (255)
3. “-러”와 “-려”, “-려고”의 쓰임 …… (255)
4. “-든, -든지”와 “-던, -던지”의 구별 …… (256)
제5절 규정토의 의미와 쓰임 …… (257)
1. 규정토의 의미 …… (257)
2. 규정토의 쓰임 …… (260)
제6절 존칭토의 의미와 쓰임 …… (262)
1. 존칭토의 의미 …… (263)
2. 존칭토의 쓰임 …… (264)
제7절 꾸밈토의 의미와 쓰임 …… (266)
제8절 시칭토의 의미와 쓰임 …… (270)
1. 시칭토의 의미 …… (270)
2. 시칭토의 어울림 …… (277)
제9절 전성토의 의미와 쓰임 …… (281)
1. 전성토의 의미 …… (281)
2. 전성토의 쓰임 …… (281)
제10절 강조토의 기능 …… (287)

제2편 문장론

제1장 문장의 기본표식 …… (291)
제1절 문장의 기본표식에 대한 사적고찰 …… (291)
제2절 문장의 개념과 그 기본표식 …… (295)

제3절 진술성과 그 표현수단 …… (299)
제4절 문장론적 제 관계의 표현수단 …… (303)
1. 위치토 …… (304)
2. 보조적단어 …… (306)
3. 어순 …… (308)
4. 억양 …… (308)
제5절 문장의 구획과 단위 …… (309)
1. 어음 - 의미적측면에서의 문장의 구획 …… (310)
2. 론리 - 의미적측면에서의 문장의 구획 …… (310)
3. 형태 - 의미적측면에서의 문장의 구획 …… (311)
4. 구조 - 기능적측면에서의 문장의 구획 …… (312)
제2장 단어결합 …… (313)
제1절 단어결합의 개념 …… (313)
제2절 단어결합에 대한 사적고찰 …… (315)
제3절 단어결합의 류형 …… (318)
1. 자립적단어들의 결합 …… (318)
2. 자립적단어와 보조적단어의 결합 …… (322)
3. 조선어단어결합의 단계적특성 …… (323)
제3장 문장성분 …… (325)
제1절 문장성분과 그 구성단위 …… (325)
1. 문장성분 …… (325)
2. 문장성분의 단위 …… (328)
제2절 문장성분의 분류와 그 표현 …… (334)
1. 문장성분의 분류기준과 문장성분의 분류 …… (334)
2. 구체적인 문장성분과 표현 …… (346)
3. 동종성분과 총괄어 …… (395)
제3절 어순 …… (398)
1. 어순을 제약하는 요인 …… (400)
2. 보통어순(정상적인 어순) …… (402)
3. 강조어순(전도된 어순) …… (407)
4. 보충어순 …… (407)

제4절 문장성분의 어울림 …… (408)
1. 례의적표현의 어울림 …… (408)
2. 양태적표현의 어울림 …… (410)
3. 의문의 표현의 어울림 …… (412)
제5절 문장성분의 생략 …… (413)
1. 전제와 초점 …… (414)
2. 생략의 조건 …… (415)
제4장 문장의 분류 …… (420)
제1절 문장의 분류에 대한 사적고찰 …… (420)
제2절 기능에 따른 분류 …… (423)
1. 서술문, 의문문, 권유문, 명령문, 감동문 …… (423)
2. 주동문, 사동(역)문, 피동문, 중동문 …… (428)
제3절 구조에 따른 문장의 분류 …… (430)
1. 단순문과 확대문 …… (430)
2. 단일문과 복합문 …… (431)
제5장 담화법 …… (449)
제1절 직접담화법과 표현형식 …… (449)
제2절 간접담화법과 표현형식 …… (452)
제3절 직접담화법을 간접담화법으로 고치는 방법 …… (453)

▶ 부록1 《조선어문법》 참고서목록 …… (456)
▶ 부록2 일부 문법서의 서술체계 …… (459)

서 론

제1절 문법과 그 특성

인간교제의 기본도구로서의 언어는 구조적으로 볼 때 어음, 어휘, 문법의 세개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언어의 물질적외각으로서의 어음이 없이는 그 어떤 언어든지 물질화될수 없으며 또 언어의 건축재료로서의 어휘구성이 없이도 그 어떤 언어든지 이루어질수 없다. 그것은 마치도 건축재료가 없이는 어떤 건축물도 이루어질수 없는것과 같다.

그러나 건축재료 그 자체가 건축물이 아닌것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어음적외피를 가진 어휘구성도 그 자체가 결코 언어인것은 아니다. 어휘구성은 오직 문법의 관할밑에 들어갈 때만이 비로소 언어의 건축재료로서의 자체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그 의의를 가지게 된다.

례컨대 "붉다", "피다", "꽃" 등과 같은 단어들의 무질서한 배렬만으로써는 아직 그 어떤 사상도 나타내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단어들이 일단 우리 말에 고유한 일정한 규칙에 따라 형태를 변화하면서 련결되여 "붉은 꽃이 피였다.", "꽃이 붉게 피였다.", "붉게 핀 꽃이였다." 등과 같은 문장을 이루게 되면 비교적 완결된 사상을 나타내게 된다.

이와 같이 단어들을 변화시키고 단어들을 련결시키며 문장을 조직하는 규칙의 집성을 문법이라고 한다. 언어는 바로 이런 문법이 있음으로 하여 인간의 사상을 물질적인 언어의 외피로 덮어쌀 가능성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문법은 언어구조를 이루는 중요한 구성요소의 하나로 되지 않을수 없다.

문법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있다.

첫째, 추상성

추상성은 문법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이다.

우에서 보았다싶이 문법이란 단어의 변화와 문장에 있어서의 단어들의

此为试读,需要完整PDF请访问: www.ertongbook.com

런결에 관한 규칙의 집성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제 규칙들은 어느 한 구체적인 단어나 문장에만 국한된 규칙인것이 아니라 일련의 구체적인 단어나 구체적인 문장에서 특수적이고 구체적인것을 추상해버리고 공통적이고 일반적인것을 귀납함으로써 이루어진 같은 부류의 단어, 같은 부류의 문장에 적용될수 있는 일반성과 개괄성을 가진 규칙이다.

례컨대 명사의 격변화에 의한 규칙은 어느 한두개의 명사의 형태변화에서 도출된 그리고 이 한두개의 명사에만 적응되는 구체적인 규칙인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사람과, 사람의…", "식물이, 식물을, 식물과, 식물의…", "마을이, 마을을, 마을과, 마을의…" 등등과 같은 일련의 명사의 형태변화에서 도출된 그리고 명사 전반에 적응되는 일반적인 규칙인것이다. 또 례를 들어 단어들이 규정적관계로 결합될 때에는 언제나 규정하는 단어가 앞에 놓이고 규정받는 단어가 뒤에 놓인다는 규칙도 어느 한두개의 구체적인 단어결합에서 도출된 규칙인것이 아니라 "간 사람", "붉은 꽃", "철수의 책", "새 물리교과서" 등등과 같은 일련의 단어결합에서 추상화된 일반적인 규칙들인것이다. 이리하여 문법은 우선 추상성으로 특징지어진다.

둘째, 전일성

문법의 다른 한 특성으로 전일성을 들수 있다. 세상의 모든 사물이 발전하는것과 마찬가지로 언어도 어음, 어휘, 문법의 제 구성요소들의 변화와 발전을 통하여 변화발전한다.

언어의 변화에서 어휘구성은 무엇보다 가동성이 강한 언어의 구성요소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거의 부단히 변화발전한다. 례하면 수사에서 "백"은 고대조선어에서는 "온"이라 하고 "천"은 "즈믄"이라 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라져버리고말았다. 그러나 어음이나 문법은 견인성이 비교적 강한 언어의 구성요소로서 매우 더디게 변화발전한다. 특히 문법이 더욱 그러하다. 문법구조는 언어의 창조자이며 보유자인 인민대중의 장기적인 추상화의 작업을 통하여 여러 시대에 걸쳐 작성된것이기에 그 변화가 극히 완만하다. 이와 같은 사정은 15 세기의 조선어문법과 현대조선어문법의 비교를 통하여 쉽게 보아낼수 있는바 적지 않은 시기의 기본문법체계는 별로 큰 차이가 없다. 15 세기 조선어의 어순도 "주어-보어-술어"의 구조였고 지금의 어순도 여전히 "주어-보어-술어"의 구조이다. 여기서 명백히 알아야 할것은 어음이나 문법

의 변화가 아주 더디다는것이지 변화가 아주 없다는것은 아니다. 례하면 15세기 조선어에서 "ㅅ"계렬과 "ㅂ"계렬의 어음체계가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완전히 어음체계에서 사라져버리고말았다. 일반언어학강의에서 배웠다싶이 이것은 우리 조선어도 일반 다른 언어들과 마찬가지로 가변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셋째, 민족적특성

문법구조는 또 언어에서 그 어느 부분보다도 민족적특성을 강하게 지니고있다.

인간교제의 주요한 도구로서의 언어가 전인민적성격을 띠고있는것만큼 언어구조의 구성요소들인 어음, 어휘, 문법은 모두 민족적특성을 지니기 마련이다. 그런데 언어구성요소들가운데서 민족적특성을 보다 강하게 지니고있는것은 그래도 문법구조이다. 우에서도 지적한바 있듯이 조선어어순은 15세기나 지금이나 변화가 거의 없다. 이리하여 개별적언어의 구조적특성은 기본적으로는 문법구조의 특성에서 나타나게 된다. 때문에 매개 언어의 문법구조를 연구함에 있어서는 그 언어에 고유한 문법적법칙을 밝혀내는것이 기본과업의 하나로 나서게 된다.

제2절 문법론의 연구대상

문법론이란 언어의 문법구조를 연구하는 언어학의 한 분과이다.

문법이 단어의 변화, 문장에 있어서의 단어들의 련결에 관한 규칙의 집성인것만큼 이 문법구조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문법론은 단어, 단어들의 련결, 문장 등을 자기의 주요한 연구대상으로 삼게 된다.

문법론은 그 연구대상에 따라 크게 두개 부분으로 나뉜다.

즉 형태론과 문장론으로 나뉜다.

형태론과 문장론의 연구대상도 각자 다르다.

형태론의 연구대상은 단어인데 주로 단어의 변화, 단어의 구성, 단어의 부류 등을 연구하게 된다.

단어의 변화란 같은 단어의 부동한 문법적형태, 즉 같은 단어가 부동한 문법적의미를 나타내기 위하여 취하는 부동한 문법적형태를 말하는데 조선어

에서 단어의 문법적형태는 주로 토에 의해 표현되기에 여기서는 주로 토의 류형과 그 특성, 부동한 토들의 각이한 의미 및 그로부터 개괄되는 문법적범주 등을 연구한다.

단어의 변화는 단어의 구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있다. 단어의 변화는 단어의 어느 한 부분에 집중되므로 단어의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구성과 그 특성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단어의 변화와 단어의 구성은 단어의 부류로서의 품사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있는바 품사가 다름에 따라 단어의 변화와 단어의 구성은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인다. 그러므로 형태론에서는 단어의 부류로서의 품사와 그 특성도 연구하게 된다.

단어조성법은 독립적인 분과를 이루나 보통 형태론에서도 얼마간 취급하게 되는데 그것은 단어조성의 수단과 형태변화의 수단이 서로 련계되여있고 또 매개 품사에는 단어조성적면에서의 서로 다른 특성이 있기때문이다.

문장론의 연구대상은 단어들의 련결과 문장인데 주로 단어와 단어들이 련결되여 문장을 이루는 규칙을 연구하는 문법의 한 분과이다.

문장론과 형태론은 같은 점과 다른 점을 갖고있다.

문장론은 문법론의 다른 한 분과인 형태론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언어가 사람들의 교제의 수단으로 되기 위해서는 언어구조의 기본단위인 단어들이 언어에 고유한 일정한 규칙에 따라 련결되여 언어교제의 기본단위인 문장을 이루어야 하며 또한 언어교제의 기본단위인 문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어들이 이러저러한 수법에 의하여 일정한 형태변화를 해야 한다.

우에서 보다싶이 문장론과 형태론은 다같이 단어와 관련된 리론이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갖고있으며 서로 밀접히 련계되여있다.

그러나 문장론과 형태론은 언어의 문법구조와 밀접히 련관되여있는 단어를 서로 다른 각도에서 고찰하고 해명함으로써 그 연구대상이 서로 구별되는 뚜렷한 특성을 가지고있다.

형태론은 단어의 구조와 그 변화를 주요한 연구대상으로 하고있지만 문장론은 문장에서의 단어들의 문법적련결과 문장의 구조적특성을 주요한 연구대상으로 하고있다. 그리하여 문장론에서는 단어들의 문법적련결의 수법과 특성, 문장의 문법적특성과 그 구조적성격 그리고 문장의 여러 류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제3절 문법연구의 력사

조선어의 문법적사실이 학문적바탕우에서 연구된것은 그리 오래지 않다. 19세기전반기 일본에 와있던 독일인의사 지볼트가 서양문법의 관점으로 조선어의 문법적사실을 고찰하고 특징을 파악한것이 조선어문법연구의 효시가 된다. 그후 서양 각 나라의 선교사, 외교관, 학자들은 조선어의 문법현상을 꾸준히 연구해왔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대부분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것으로서 조선사람의 요구와 필요와는 거리가 멀었다. 조선사람들 자신의 손으로 조선어문법이 연구되고 그것이 배움의 마당에 응용된것은 갑오경장(1894년)이후부터이다.

갑오경장은 조선어의 문자생활에 혁명을 가져왔다. 모든 공문서를 조선문으로 본을 삼으라는 고종의 칙령이 발표되였기때문이다. 이어 각급 학교가 설치되고 교과서가 편찬됨에 따라 조선말과 조선글을 정리하자는 어문정리운동이 일어났다. 어문정리의 기초가 되는것은 문법연구이다. 조선말의 음성과 문법 일반에 대한 연구가 되여있어야만 말과 글을 합리하게 정리할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개화기의 뜻있는 학자들은 문법을 연구하였다. 대표적인 학자는 유길준(俞吉俊)과 주시경(周时经)이다. 유길준은 19세기말에 일본과 유럽 여러 나라를 방문, 1909년에는《대한문전(大韩文典)》을 펴내기도 하였다. 그는 일본문법의 영향을 받아 조선어문법을 연구하였는데 여러번 원고를 바꾸어가며 본서를 완성하였다. 그의 문장론은 성분분류와 문장의 종류 가르기가 주축을 이루었는데 이후의 조선어전통문법의 효시가 되였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크게 인정된다.

주시경은 17세때부터 조선어연구에 눈을 떠 23세때에《국어문법(国语文法)》을 저술하고 그것을 각종 강습기관을 통하여 보급하였다. 여러 종류의 프린트형태의 저술을 거쳐 1910년에는《국어문법》을 정식으로 간행하였다. 그는 이 책에서 조사(체언토)는 말할것도 없고 선어말어미를 포함한 어미(용언토)까지 단어로 처리하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9품사를 세웠다.

임(명), 엇(형), 움(동), 겻(조사), 잇(접속사), 언(관), 억(부), 놀(감), 끗(종결사)

주시경은 품사이름을 비롯하여 모든 문법용어를 순수한 조선말로 하였는데 단어의 일부분을 따서 이름을 지은것이 특징이라 할수 있다. "임"은 "이름"의 "이"와 "ㅁ"을 따서 만든것이고 "움"은 "움직임"에서 가져온것이다.

주시경의 문법리론중에서 특이한것은 문장의 구성방식에 대한 립체적분석과 그에 대한 의미해석방법이다. 그는 문장구성의 설명에서 "숨은 뜻, 속뜻"이라는 개념을 리용하여 립체적관점에서 문장을 분석하였으며 한 문장의 의미는 고정된것이 아니라 화자의 태도와 말이 사용되는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그 사람이 마음이 착하다."라는 문장에서 "마음이 착하다."는 주어에 대한 서술어로도 볼수 있고 전체 문장을 "그 사람의 마음이 착하다."로 볼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한 문장에 대한 그림을 여러가지로 달리 그리고있다. 이러한 의미해석리론은 그의 제자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전수되지 못하였으나 1970 년대이후의 의미론과 화용론에 바탕을 둔 문법리론과 맥이 닿는다.

주시경은 1914 년에 펴낸 《말의 소리》에서 오늘날의 형태소의 개념에 가까운 "늣씨"를 설정함으로써 조선어형태론연구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주시경의 문법리론가운데서 문장론은 계승되지 못하였지만 품사론은 김두봉(金枓奉)과 최현배(崔铉培)에 의하여 수정, 발전되였다. 김두봉은 그의 《조선말본》(1916 년)을 통하여 관형사와 부사를 확립하였고 최현배는 그의 《우리말본》(1937 년)을 통하여 용언의 활용법을 세웠다. 주시경은 용언의 형태부를 단어로 인정하였으나 최현배는 단어의 일부분으로 처리한것이다. "꽃이 피였다."를 보기로 삼아 주시경과 최현배의 단어분석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시경: 꽃 - 이 피 - 였다. (4 개 단어)
최현배: 꽃 - 이 피였다. (3 개 단어)

그뒤 정렬모, 리숭녕, 김민수 등과 같이 조사까지도 단어의 일부분으로 보는 일도 없지 않으나 한국의 학교문법에서는 최현배가 세운 단어의 정의가 아직까지 생명을 지니고있다. 문장론의 경우 주시경의 리론은 김두봉에 의해 그 발전이 멈추게 되였고 오히려 유길준의 리론이 대신 맥을 이루어오다가 최현배에 의해 종합되였다. 결국 현재 한국학교문법의 리론적인 바탕은 최현

배의 《우리말본》에 등을 기대고있다고 할수 있다.

1963 년 학교문법에 통일되기 이전까지는 현대어문법에 관한 학교문법과 학문문법이 구분되지 않고 연구되여왔다. 1950 년대후반부터 구조언어학의 리론과 방법이 도입되면서부터 조선어문법구조, 특히 형태구조에 대한 깊은 연구들이 나타났다. 이는 종으로 주시경이 그의 《말의 소리》에서 세웠던 "늣씨" 중심의 형태리론을 계승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한편, 1960 년대후반부터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한 변형생성리론은 유길준 이래 큰 진전이 없었던 문장론연구에 큰 바람을 일으켰다. 문장의 구성을 평면적으로 보아오던 이전의 방법에서 벗어나 립체적인 분석을 시도하였고 문장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있어서도 화자의 태도와 현실적인 발화상황을 깊이 류의하였다. 이는 종적으로 주시경의 문법리론과 맥이 닿는 결과를 가져왔거니와 두 리론을 적절히 통합하면 그나름의 문법리론을 정립할수 있는 기틀이 될수 있는것이다. 이러한 방면의 업적은 김민수의 《국어문법론》(1971 년)과 《국어의미론》(1980 년)에 의해 어느 정도 체계적인 종합화가 시도되였다.

조선은 나라정권수립의 초기부터 그들나름의 독자적인 규범문법을 만들어 그들의 언어생활을 통제하여왔다. 1949 년에는 시험적인 《조선어문법》을 내고 1960 년대에 들어서서는 《조선어문법》(어음론, 형태론)(1)과 《조선어문법》(문장론)(2)을 저술하였으며 1970 년대에 들어오면서는 문화어운동을 뒤받침하는 《조선어문법》(1970 년), 《조선문화어문법규범》(1976 년), 《조선문화어문법》(1979 년) 등을 펴냈다. 한편 1980 년대후반에 와서는 "품사론, 단어조성론, 형태론, 문장론"의 4 부에 걸친 《조선어리론문법》을 저술하여 조선어문법연구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업적도 발견할수 있고 1989 년에는 우의 리론문법의 성과를 집성한 김용구의 《조선어문법》이 발간되여 조선규범문법의 방향을 어느 정도 짐작할수 있다.

조선의 조선어문법연구는 주시경, 김두봉, 정렬모 등과 같은 문법가의 업적을 디딤돌로 삼되 유물론에 근거를 둔 구쏘련의 문법리론을 수용하는 관점에서 형성되였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들의 이른바 "주체사상"의 울타리안에 자리잡고있는 주체언어학의 한가닥으로 발전하여오고있다. 조선문법체계의 두드러진 특징은 한국과는 달리 조사를 독립된 단어로 인정하지 않고 "토"라는 넓은 범주속에 넣었다는것이다. 극도의 종합적체계(제3 류형)를 택하되 결과적으로는 분석적체계(흔히 제1 류형)를 수용하였다고 규정할수 있

此为试读,需要完整PDF请访问: www.ertongbook.com